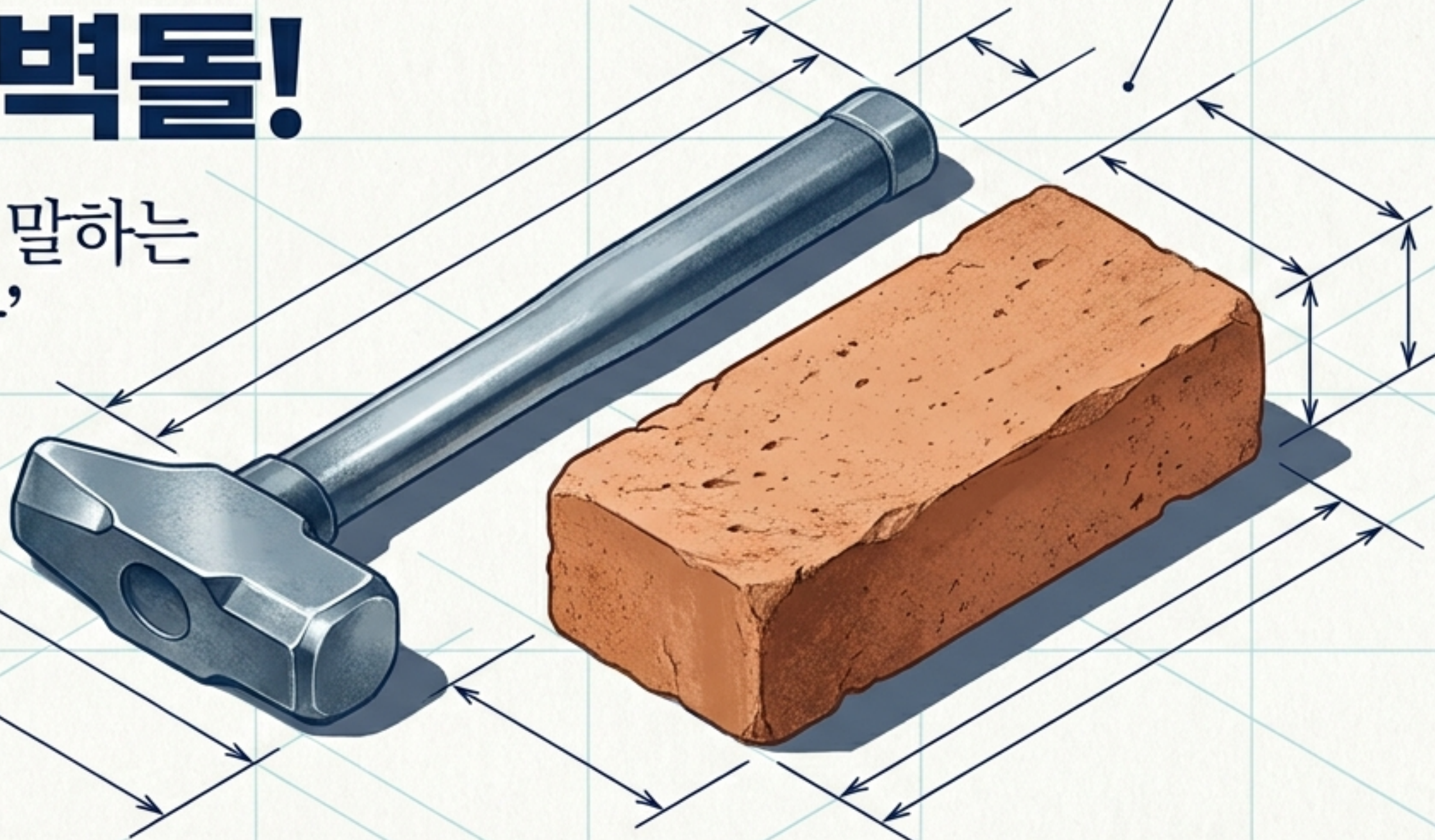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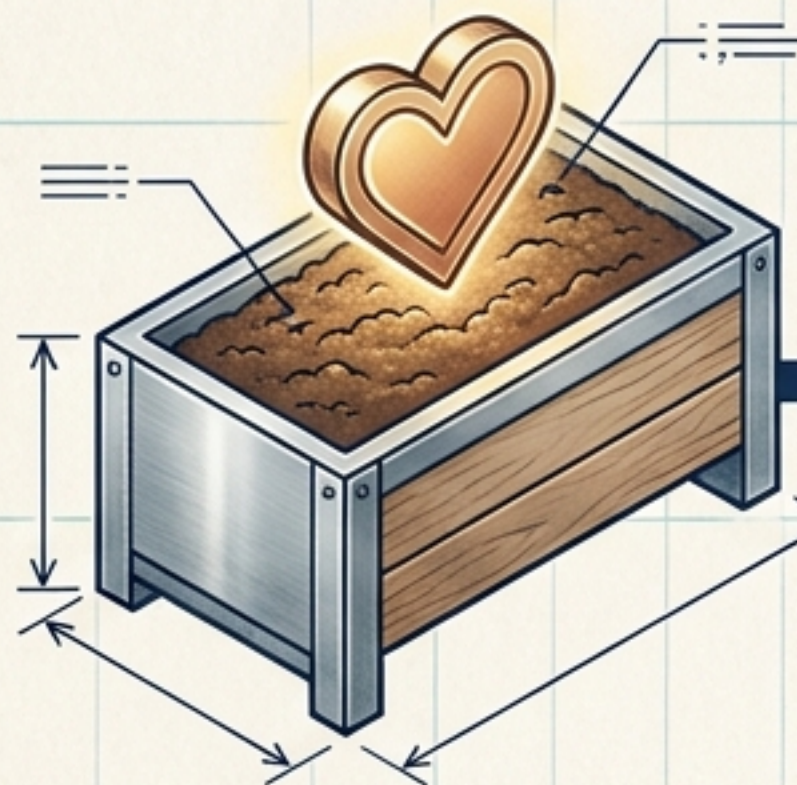
때리는 망치? 세우는 벽돌!

에베소서 4장이 말하는
'언어의 건축학'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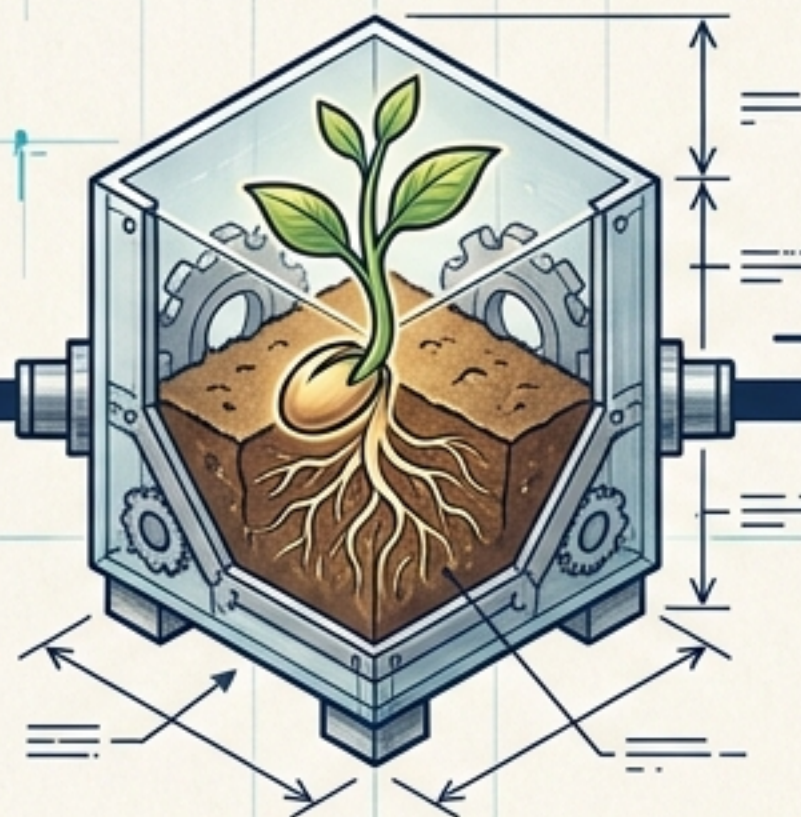
마음을 세우는 소통 가이드

말의 기원: 보이지 않는 공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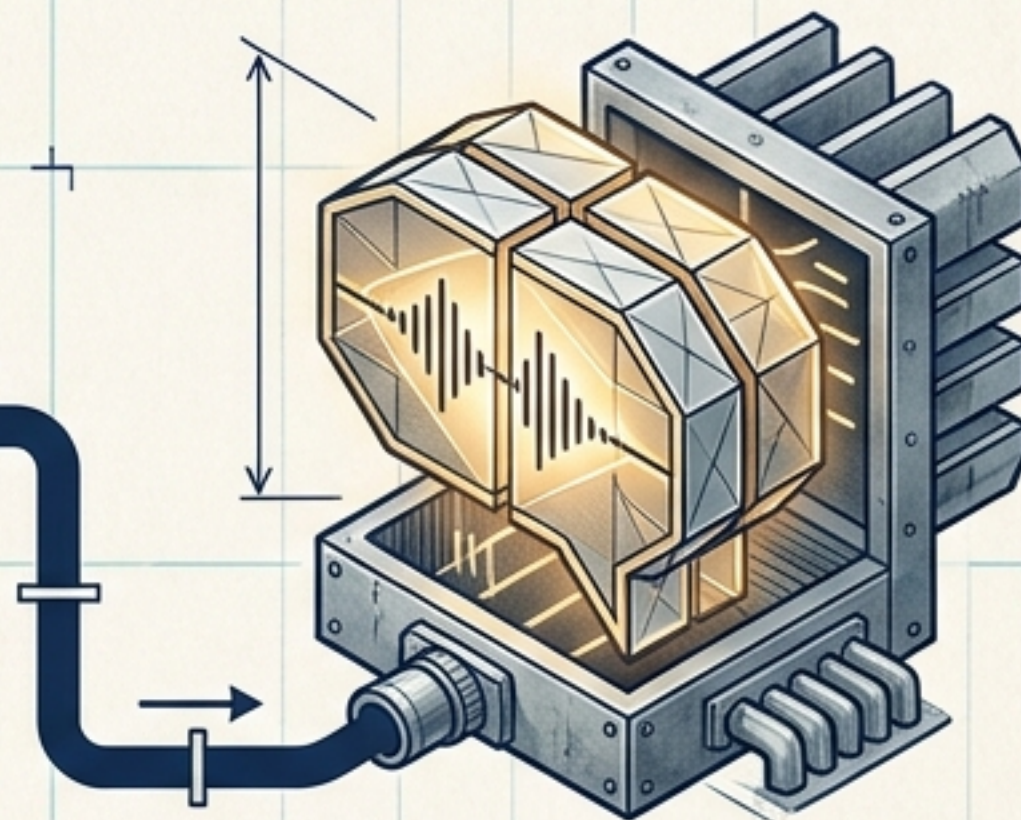
마음

감정과 생각이 심겨지는 곳.



자라남

보이지 않게 형태를 갖추는 시간.



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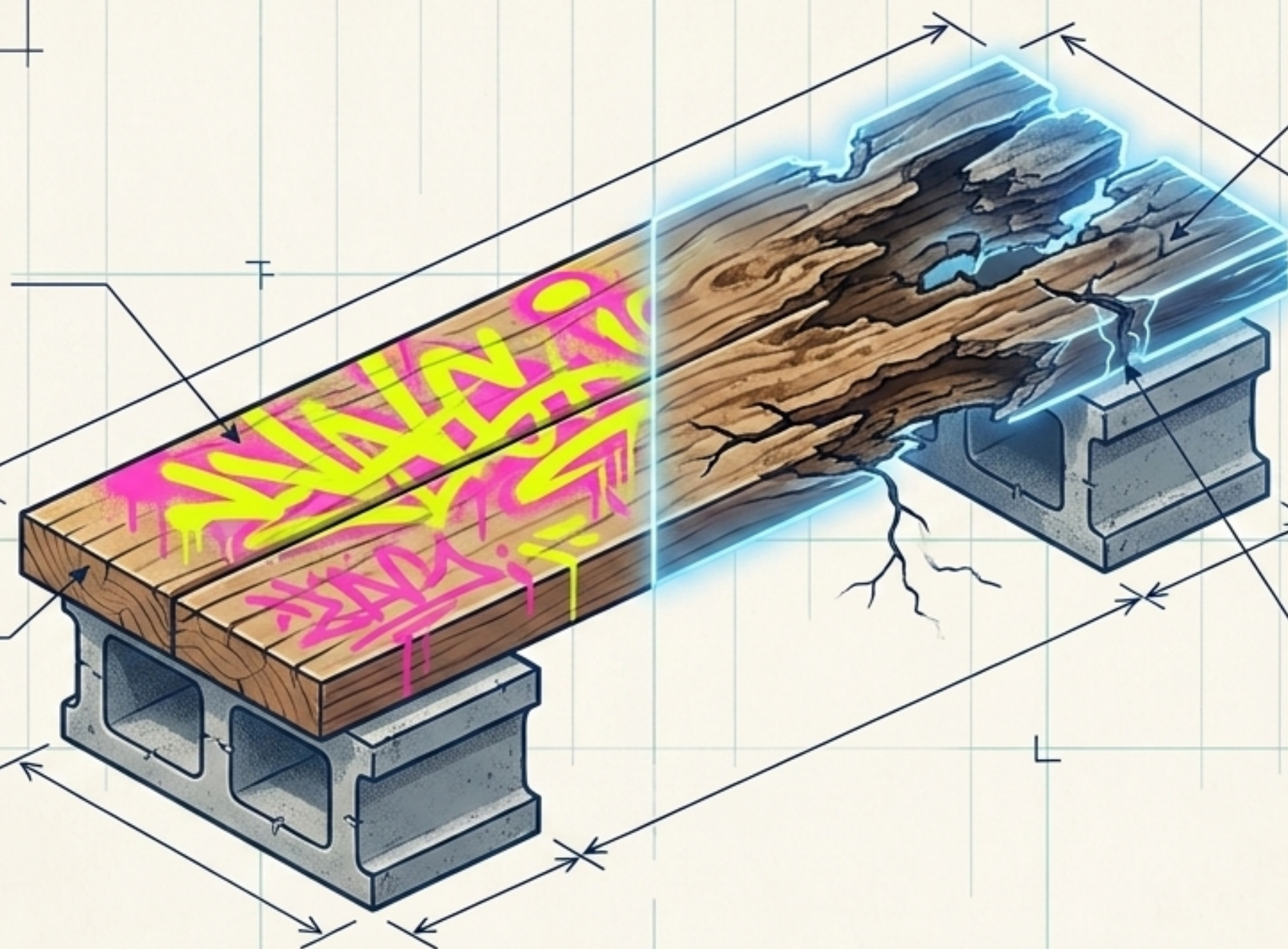
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,
마음에 쌓인 열매의 표출.

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, 내면에서 자라난 열매입니다.

썩은 말의 착각

센 척, 유머, 친구들의 호응.

겉을 멋지게 칠해도
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.



누군가 밟고 밟았을 때
'뚝' 부러지고 맙니다.

사람을 지탱해 주지 못하는
언어(욕설, 비하)는
결국 썩은 판자입니다.

무릇 더러운 말(썩은 말)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...
(에베소서 4:2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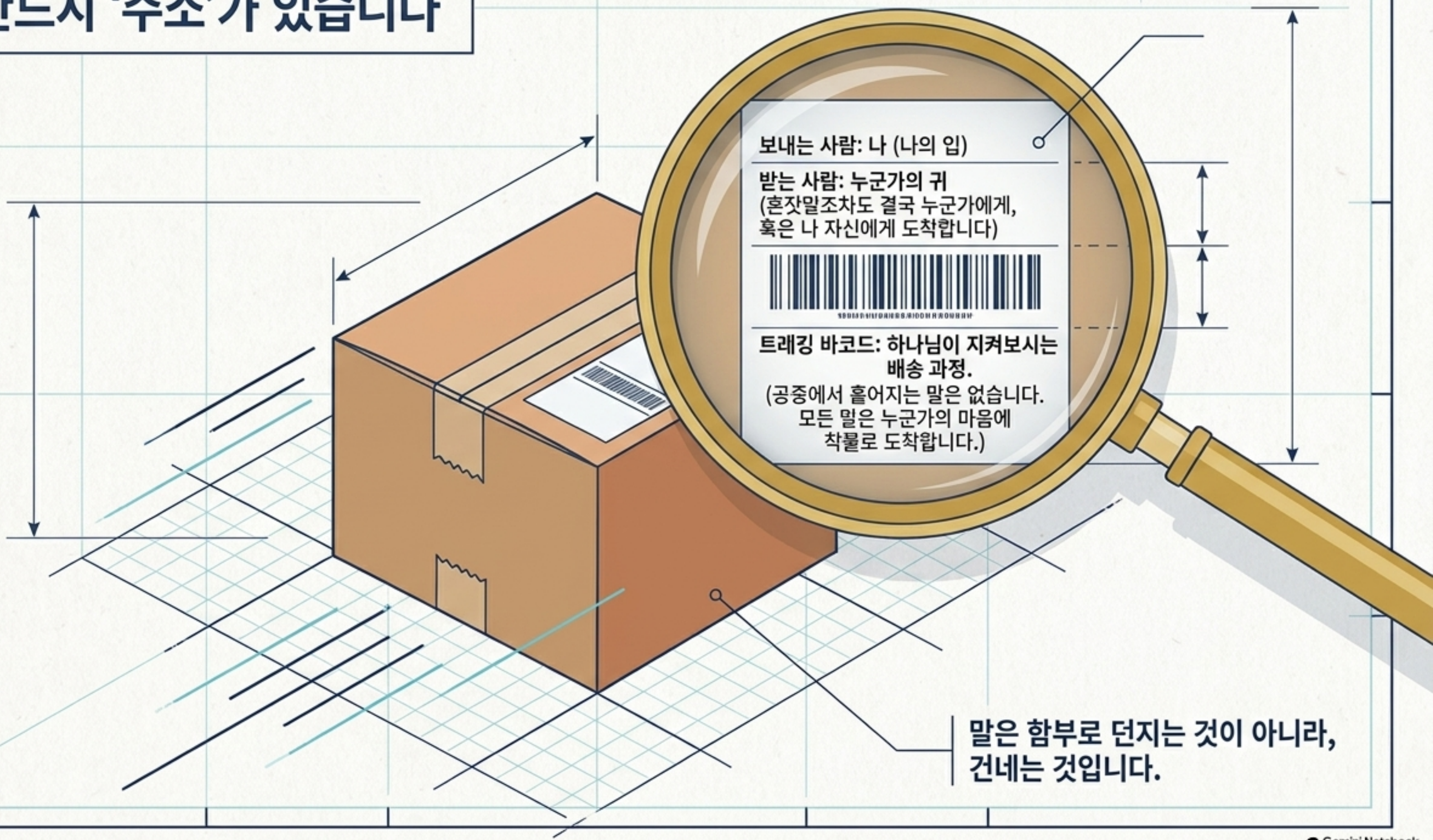
"장난이었어"라는 변명

- ✓ 망치를 휘두른 이유가 '장난'이어도, 맞은 사람은 아픕니다.
- ✓ “너 그것도 못 해?”, “넌 원래 그래” 욕설이 한 글자도 없어도, 상대의 마음을 꺾는다면 그것은 망치입니다.

말의 무게는 '말한 사람의 의도'가 아니라 '듣는 사람의 충격'으로 측정됩니다.



말에는 반드시 '주소'가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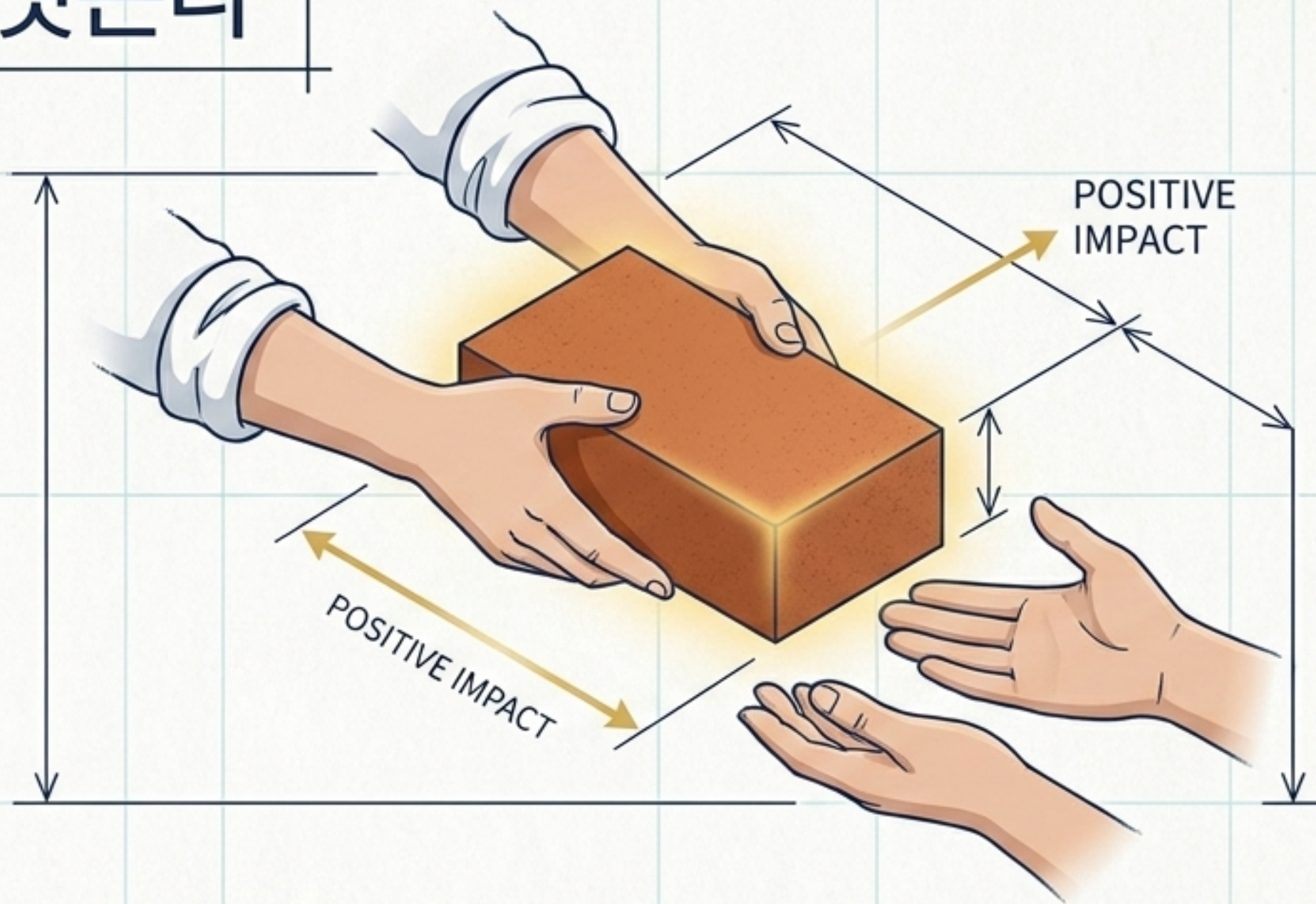


"덕을 세운다" = 집을 짓는다

Insigh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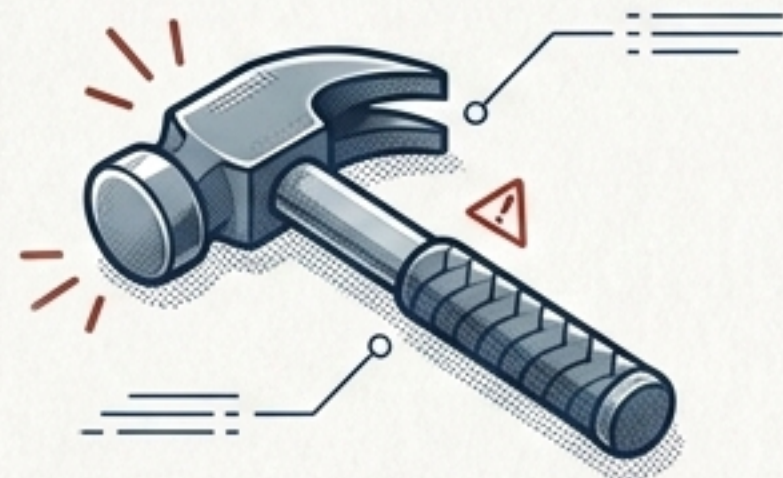
에베소서 4장 28절이
'손'으로 필요한 것을 주라고 했다면,
29절은 '입'으로 필요한 것을
주라고 말합니다.

-  고마워
-  같이 해줄게
-  네가 있어서 좋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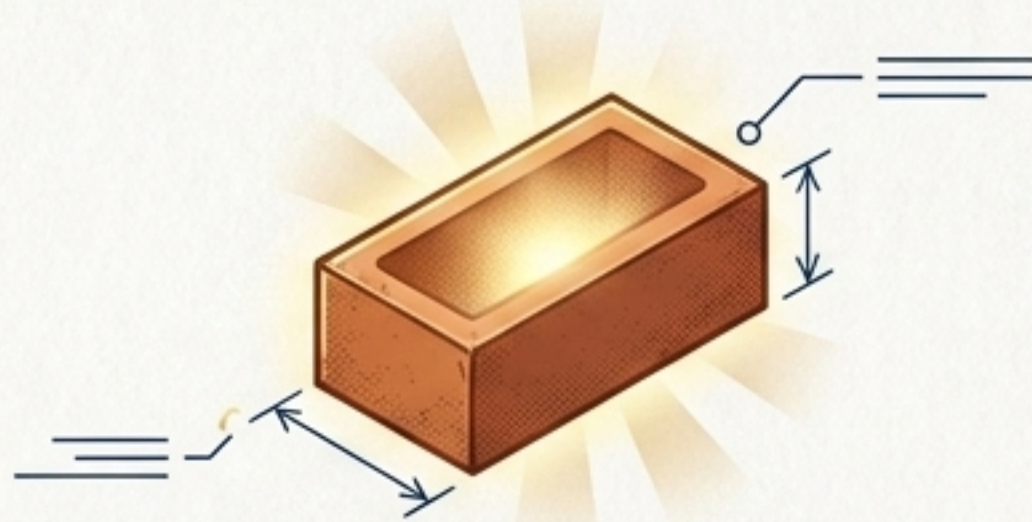
눈에 보이지 않지만, 이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 창고에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
그 사람을 단단하게 지탱합니다.

언어 습관 진단 매트릭스



때리는 망치

- ⊙ 특징: 째아내림, 상처, 무너뜨림.
- ⊙ 방향: 나 중심 (내가 재밌으려고, 내가 돋보이려고).
- ⊙ 결과: 듣는 이의 마음이 툭 꺾이고 부러짐.



세우는 벽돌

- ⊙ 특징: 덕을 세움, 은혜, 지탱함.
- ⊙ 방향: 타인 중심 (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).
- ⊙ 결과: 마음 창고에 쌓여 성벽처럼 튼튼해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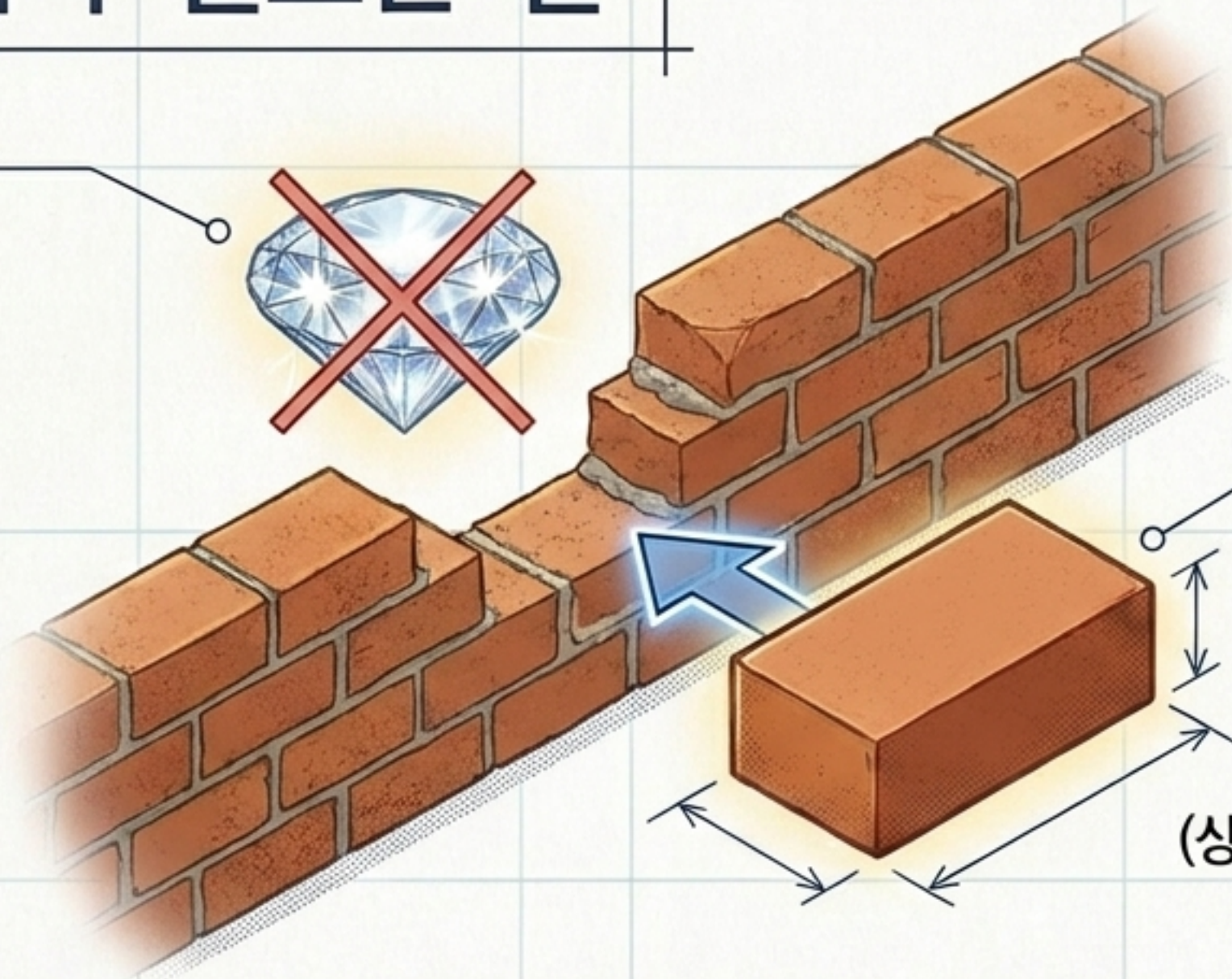
예쁜 말이 아니라 '필요한' 말

예쁜 말

속상한 친구에게
“너 오늘 옷 예쁘다!”

Insight

(보기에는 좋지만,
무너진 틈을 메울 수는
없습니다)



필요한 말

“많이 속상했겠다,
내가 옆에 있을게.”

Insight

(상처난 공간에 정확히 들어맞아
벽을 다시 지탱합니다)

성경은 '아무 좋은 말'이 아니라
'그 사람에게 필요한(소용되는) 말'을 하라고 권면합니다.

우리가 건네는 벽돌은, 사실 '받은' 벽돌입니다

우리가 원래부터 완벽한
건축가여서가 아닙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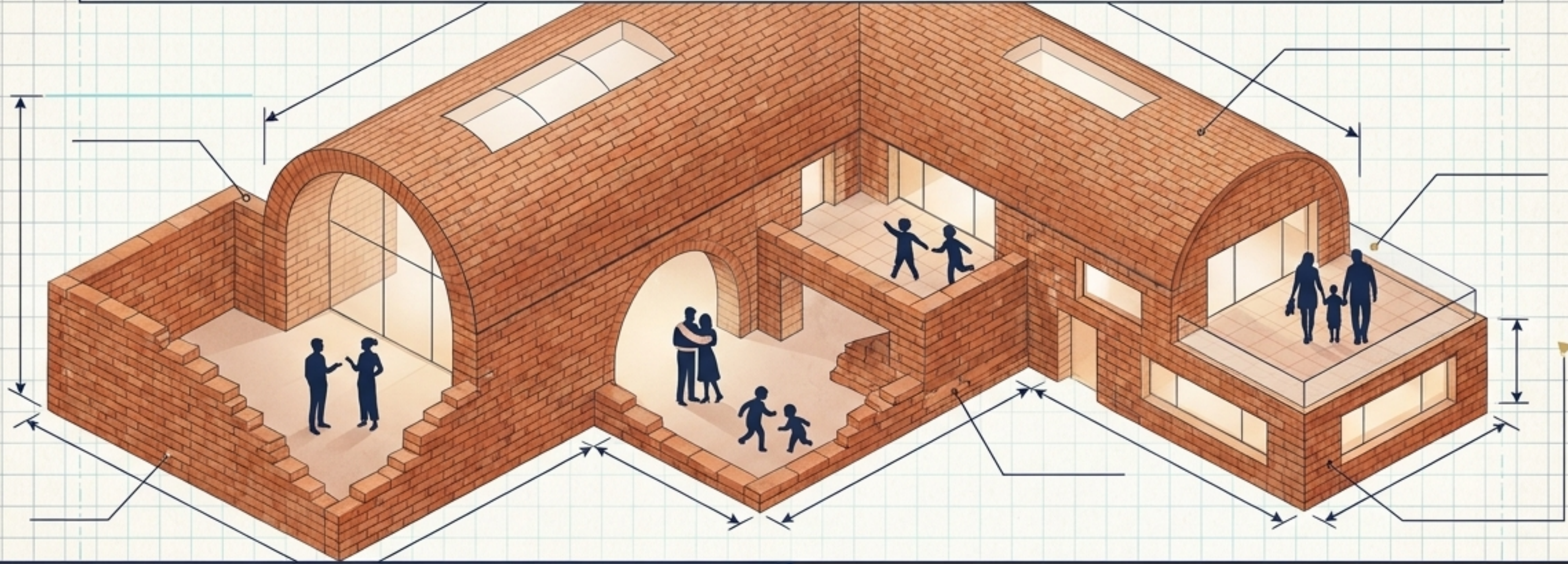
하나님이 우리의 부서진 마음에
은혜와 용서의 벽돌을 먼저
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.

습관을 바꾸는 진정한 힘은
이 지점에서 나옵니다.



“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
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”
(에베소서 4:32)

우리의 말이 모여 '우리'를 짓습니다



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거대한 집으로 만들어가신다고 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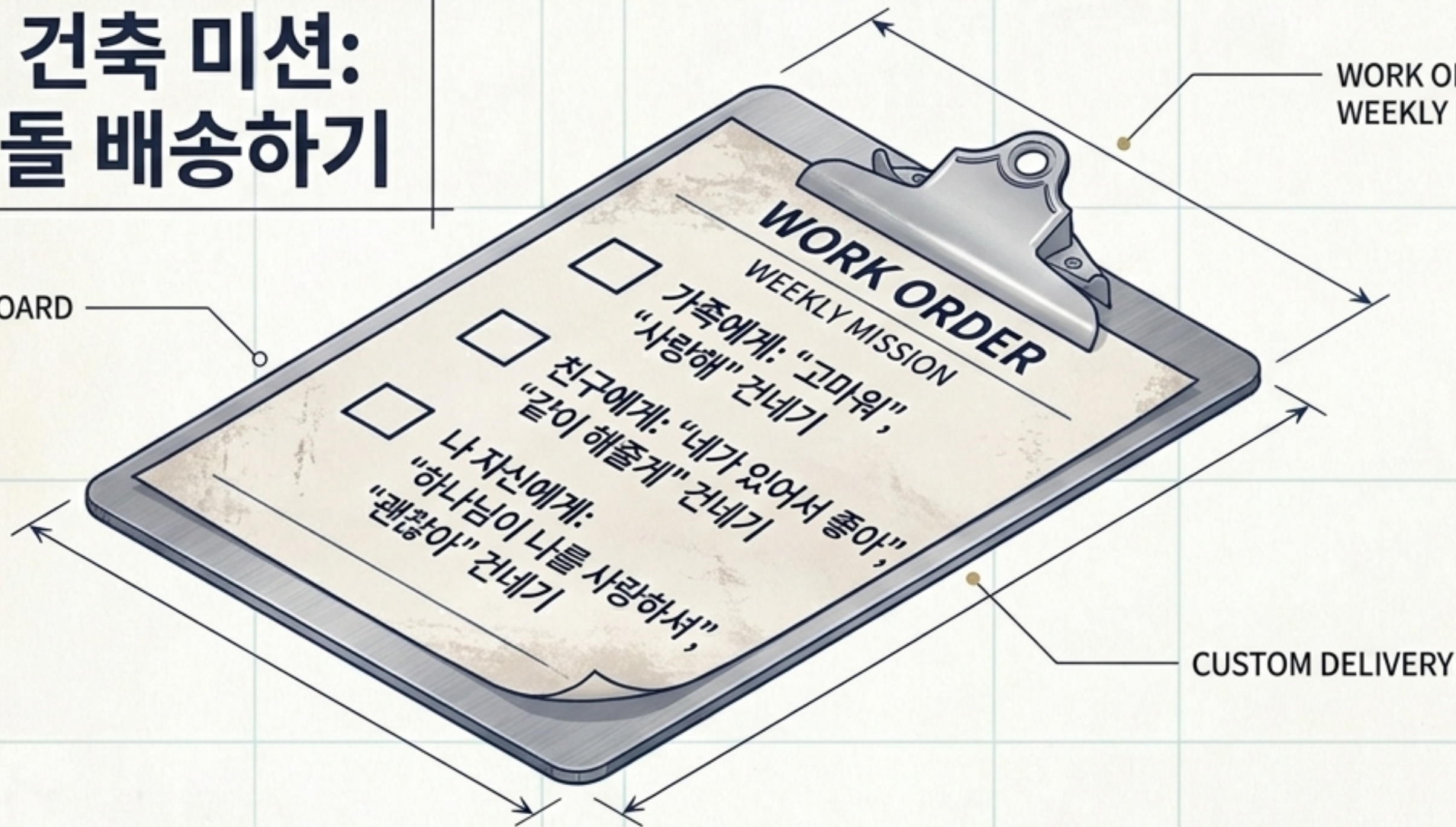
나의 입술에서 나온 벽돌 하나가 엄마를, 친구를, 동생을 단단하게 세우는 성벽이 성벽이 됩니다.

**지금 여러분의 말은,
누군가를 아프게 부수고 있나요?
아니면 튼튼하게 세워주고 있나요?**

이번 주의 건축 미션: 나만의 벽돌 배송하기

STEEL CLIPBOARD

WORK ORDER:
WEEKLY MISSION



오늘 당신의 입술에서 출발할 '맞춤형 택배'는 무엇입니까?